

이달의 포커스 뉴스



<기업탐방>

스마트 빌딩 & 공장 시스템 IoT 전문 기업, 삼일 CTS!

21P

2021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V자 반등 예상되나 안정적 백신 확보가 관건

26P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산업	2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국제협력단(KOICA)	18
<기업탐방> 삼일 CTS 한창우 법인장	21
<금융> '21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신한은행	26
<노무> 베트남 비사무직 직원 채용시 주지사항 최지웅 변호사	31
<법률>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김유호 변호사	34
지적재산권 상담사례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37
<현안> 노무관련 긴급 질의 및 답변 이재국 노무관	40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타이빈성>	44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51
<웹툰>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56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58





베트남 노동시장, 고속연화단계 진입

- 베트남 정부, 고속연 노동력으로 가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시행
- 진출기업들, 노동시장 변화에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베트남의 전체 고용인구는 현재 약 4,900만 명에 달하고 있기에 높은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인적자본 덕분에 베트남은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업률 역시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현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고속연 노동력 육성을 향해가는 이유: 청년실업률, 노동생산성 해결 + 새로운 방향의 투자 유치

임금 수준과 실업률을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보이는 베트남의 노동시장도 변화속에서 몇 가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해 발생한 Covid-19로 더욱 화두가 됐으며, 베트남 정부의 정책추진의지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차산업 내에 고용인구는 약 7.5%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2차산업은 16.5%, 그리고 3차산업은 20.4%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총 910만 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54만 명은 직장을 잃었고, 280만 명은 일시적으로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며 절반이 넘는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정부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이다. 전문대 ~ 대졸 그리고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청년실업률은 기초(초등) 및 중등교육을 수료한 인구보다 실업률이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전체 노동생산성은 1만1,142달러(PPP기준)로 추정되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7.3%, 말레이시아의 19%, 태국의 37%에 불과하고, 심지어 주요 경쟁국인 인도네시아의 44.8%, 필리핀의 55.9%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0 노동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일본과는 60년, 말레이시아와는 40년, 그리고 태국과는 10년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주변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에서는 올해 초 개정 노동법 시행령 발표와 같이 자국민에 대한 고용도 보장하며, 노동생산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속연 노동력의 증가는 새로운 투자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제조업 기반으로 진출한 기업들(혹은 진출 예정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주목해야 할 베트남 물류산업

-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전자상거래 성장 등 코로나19 반사이익 누리는 물류산업
- 저온창고, 풀필먼트 시스템 확충 등 베트남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 추진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교역의 회복세 또한 뚜렷하다. 이러한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공급체인망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용(인건비, 임대료 등)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베트남 물류산업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메가 FTA 체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제조업 메카로 부상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역할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로 분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여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생기며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

메가 FTA체결로 인한 경제영토 확장

베트남은 작년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역액은 5.1%, 수출은 6.8% 증가하였다. 올해 4월까지의 수출과 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 물류 인프라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항만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최대 8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글로벌 항만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전자상거래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물류산업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무역부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에 따라 물류시장 역시 30~4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하노이와 호찌민 인근에 대규모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분기에만 물류창고의 임대료가 5~10% 상승한 바 있다.

시사점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고려 시 입주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 철도역과의 거리, 주요 물류 인프라까지의 고속도로 이용 가능 여부 등 물류 인프라 관련 사항은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제조 가공 수출기업들이 대부분이기에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높은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서 물류 인프라는 생산 원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최근 노동법 시행령 개정

- 노동법 개정제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및 기업들의 채용 기준 강화
- 현지 노동부 - 각국 대사관 및 대표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점 모색 지속
- 채용 시 기업과 구직자 모두 개정법령을 확인해 절차상에서 올 수 있는 불이익 최소화

1. 전문가 등 인정 요건 강화

1)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기준 강화: 베트남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경력만 인정

기존에는 베트남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증명서상 인정되는 근무 경력으로 포함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인한 베트남 호치민시 노동국 입장은 경력증명서상 인정되는 경력은 반드시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치민 이외 지역은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의 경력도 인정)

2) 전문가 인정서 효력 인정 근거 규정 삭제

3) 전문가 및 기술자 인정 요건 추가

2.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및 요건 명확화

(상세 내용은 베트남비즈니스뉴스 6월호, 노동관련 베트남 주요 현안[이재국 고용노동관] 참고)

1) 근로계약체결, 신고, 발급 의무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은 노동허가서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과 일치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노동허가 재발급 사유 및 요건 명시

3) 노동허가서 발급면제 및 면제확인서 발급

3. 외국인근로자채용계획 승인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 예정 30일 전에 외국인근로자채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채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 직위(또는 직함)를 제공되는 양식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의 내용과 직위(또는 직함) 간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시사점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기업협회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노동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베트남 노동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1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행사

- 노동비자 발급요건 변경 등 구직자가 알아야할 베트남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현지 맞춤 채용 전략 필요,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갖춰야

KOTRA 다낭무역관은 지난 6월 4일, 최근 노동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 발급 요건 변경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베트남 노동법과 현지 취업에 성공한 선배 취업자들의 구직 스토리 및 근무환경 등 현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멘토링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인정 요건 강화로 무경력 구직자 애로사항 증가

지난 2013년 체결된 ‘한-베 전문가 인정 MOU’에 따라 경력이 없는 구직자들도 K-MOVE스쿨 수료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받아 노동 허가가 발급되었지만,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동 MOU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동시에 전문가 인정 요건도 강화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 발생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 등과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리자나 운영 감독자로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한-베 정부가 협의 중에 있다.

한국과는 다른 현지 채용,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 세워야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현지 취업에 공채가 없고 거의 상시 채용이며, 대부분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하는 업무 혹은 회사와 관련 없는 1년 미만의 경력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면접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관련 경력, 이탈 리스크, 언어능력 등이 있다.

왜 해외에서 취업 및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장점은 광범위한 업무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은 베트남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원한다. 따라서 채용이 되면 거의 모든 업무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 단점으로는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아무리 베트남어를 잘해도 베트남 직원들과의 완벽한 소통은 어렵기에 꾸준한 언어 학습이 필요하다.

시사점

이번 행사에서 멘티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은 베트남 구직 시장의 현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직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멘티들의 예상과는 달리 멘토들은 베트남 구직 시장은 아직도 활발하며, 현지 취업 시장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도전한다면 충분히 베트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베트남 수처리 산업 살펴보기

- 제조업 투자 진출 증대에 따라 환경분야 관심도 제고
- 투자인센티브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긍정적 요인 존재

제조업 투자 진출 증가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 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산업 폐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문 중 상·하수도, 폐수처리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물 오염 및 연관된 위생환경 문제로 연간 20만 명의 암환자와 9천여 명의 사망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수처리에 대한 조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산업단지는 폐수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수처리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베트남의 수자원 현황

베트남은 풍부한 수자원 보유국가로 인식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 수자원협회(IWRA)는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4,000m³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3,840m³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수질 오염조사에 따르면, 주요 하천에서 비소, 수은,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중금속도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상류 수질은 양호하지만 하류로 갈수록 오염이 심각화 되는 이유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배경에 있다. 베트남 환경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약 75%나 처리되지 못하고 방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폐수와 인과관계를 뗄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 수처리 현황

환경자원부 산하기관인 베트남 수자원관리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궤우강(Song Cau), 뉴에강(Song Nhue), 동나이강(Song Dong Nai)의 수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강 유역들은 인구 고밀도,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통과 하는 강으로 오염은 주로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등에 기인한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72/2020/QH14을 제정했다. 동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및 운영사에 폐수 수집 및 처리 시설을 강제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업종에 대한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산업은 환경규제를 발판으로 성장한다고 본다. GVC 재편과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이 주요 소싱국가로서 위상이 제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점차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진출 증대는 산업용수·폐수, 생활 상하수도 등 설비 투자 수요로 이어질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수출용 수입원재료 외주 임가공 시 수입세 면제 명시화
- 내국 수입물품 임가공용으로 수입 시 관세 면제, 수출가공용은 과세

베트남 수출입세법은 과세 표준 및 과세율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면세, 감세, 환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2016년 4월 6일 제정돼 2016년 9월 1일 시행됐다. 금법 개정법(18/2021/ND-CP)은 재정 이후 첫 개정으로,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4월 2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수출용 수입원재료 외주 임가공 시 수입세 면제 법제화

기존 134/2016/NDCP호 시행령에 따라 기업이 수출품 생산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후 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웃소싱 한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수입원재료를 외주 임가공 하는 경우 재외주기업의 지위에 따라 수입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 구체화하였다. 가장 먼저 절차적 요건 강화를 위해 재임가공 수입받는자의 임가공 생산시설, 재임가공 계약서를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경과해 통보하는 경우 관세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받도록 하였다. 수입원자재의 외주 임가공 시 수입세 면제는 재임가공업자의 지위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 물품의 내수 수출(On Spot)절차와 면세 처리 여부

내수 수출자가 수출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기한 이내에 내국 수입자는 내국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15일 기한 내 내국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내수 수출자는 기존 면세받은 수입품의 관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내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절차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내수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여부는 내수 수입자가 임가공용(Processing)으로 수입하는지 또는 수출제조용(manufacturing)으로 수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내수 수입자가 임가공용으로(Processing) 수입 신고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시사점

우리 기업 중 임가공 및 수출품 생산 기업은 변경된 수출입세법에 의거해 거래별 면세 조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수 수출입을 통한 거래 시 면세 요건이 기존법과 다르게 임가공용 또는 수출제조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입관세 면세 또는 유예를 위해서 거래 관계를 변경하거나 또는 수입세 납부 후 환급 받는 절차 중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프랜차이즈 베트남 진출, 방법을 바꾸면 아직 기회는 있다

- 기존 로열티 계약 방법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 현지 유명기업들 자체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서비스 강화

베트남 프랜차이즈 현황

우리 기업들의 경우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기업 위주로 직접 투자를 통한 진출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1) 외식업

베트남 로컬 기업이 한국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한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유명하지 않거나 특수한 특성이 없는 중소 브랜드는 점점 시장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외식업은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거나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의 변화가 관찰된다.

2) 교육업

베트남에서 교육사업 중에서는 특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원 분야가 유망하다. 유명한 외국계 교육 사업 브랜드는 ILA, UFC, VUS 등이 있으며 현지 자생 브랜드 RiSE, Super Youth Language School, BK English 등도 외국어 교육 인기에 따라 시장에 등장했다.

3) 한국계 진출 기업

베트남 진출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는 외식업종 비중이 특히 높다. 롯데리아, 뚜레주르, 파리바게트, 본촌, 본가, 두끼, 청년다방 등이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그외에도 교육 분야는 눈높이 교육과 청담러닝, 놀이 시설은 플레이타임 등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사점

결국, 베트남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과는 협업이 쉽지 않은 환경이므로, 직접 진출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매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추후 가맹점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현지 로컬 기업이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선진화된 서비스, 자체 시스템, 로열티 삭제 또는 합리적인 가격 등의 요소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소스 공급이나 중간 식자재 공급 독점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초기 로열티 계약으로 접근하면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현지 경쟁사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지 기업들이 론칭한 한국식 신규 브랜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환경임을 유의해야 한다. 현지 기업과 구분되는 차별화는 필수이며 강점이 없다면 그만큼 시장 진출에 장벽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시장에 적합한 가격과 제품군 준비가 요구된다.





전통 금융서비스를 건너뛴 베트남의 핀테크산업

- 디지털 결제와 P2P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현지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 or 스타트업 투자 진출방안 모색 필요

줄어들고 있는 베트남의 현금거래

최근 현금을 중시하고 있는 베트남 사회에서도 현금결제를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용률이 더욱 증가한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요인: 스마트폰 보급,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기존 전통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꼽히고 있다. 그 첫번째 요인은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구 증가이다. 두번째 요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이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5년 4억 달러에서 2018년 2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요인은 앞서 언급한 기존 전통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있다. 낮은 은행 계좌 보유율과 카드 사용률은 개인 및 기업의 새로운 결제방식 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P2P 금융 서비스

P2P 서비스는 베트남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분포 비율로 보았을 때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디지털 결제 다음으로 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꼽힌다. 베트남 내 P2P 대출 산업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분야 모두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 규모 또한 2019년 기준 1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P2P 서비스와 더불어 베트남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 부문도 이목을 끌고 있기에, 두 부문의 연계를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산업성장장에 따라 M&A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18년 9월 Grab의 Moca 지분 인수, '19년 5월 VindID의 People Care 지분인수 등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간의 인수 합병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기에, 투자진출에 대한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M&A를 통한 시장 진출은 아직 성장단계 있는 베트남 핀테크 시장으로의 좋은 진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베트남을 거점으로 ASEAN국가들로의 사업영역 확대까지 계획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겨냥할 우리 술, 소주 다음 타자는?

- 친목 모임에 어울리고 선물 모양새가 나는 중고가 술로 어필 필요
- 베트남 술 시장, 알코올 도수 높지 않고 새콤달콤한 술이 진입장벽 낮아

베트남 술 시장, 2022년 100억 달러 성장 기대

독일 기반의 시장 조사업체 Statista는 2021년 베트남 내 주류(酒類) 품목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해 2022년 그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영국 기반 시장 조사업체 Euromonitor 또한 2020년 위축됐던 베트남 술 시장 매출이 2022년 들어 팬데믹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술술 자라는 베트남 술 시장, 80%는 맥주가 차지

베트남 술 시장은 맥주가 약 8할을 차지한다(한국은 4할 가량). 호찌민시를 비롯한 베트남 남부는 연중 27~30°C에 이르는 고온을 유지하는 한편 북부도 대체로 눈이 희귀한 아열대 기후이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로 인한 해갈 수요가 현지인들의 맥주 소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맥주의 알코올 평균 도수 및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베트남에서는 와인이나 증류주 등의 술보다 맥주 소비가 월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다양해지는 베트남 수입 술 시장

과거 베트남 소비자에게 외국 술이라 함은 프랑스산 와인이나 중고가 양주가 대표적이었으며, ‘비싼 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베트남에서 외국 술은 수입관세가 40~55%(MFN 기준)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되는데 더해 부가가치세(10%)와 특별소비세(35~65%)까지 부과된다. 여러 세금이 중첩 부과된 수입 술은 최종 소비자 가격이 현지 생산 맥주나 전통 곡주에 비교해 수십배 높다. 더욱이, 술 유통 사업은 베트남에서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이라 제약 요건이 있고 수입 및 유통 라이선스 발급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시사점

현재 베트남 맥주 시장은 레드오션이므로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술 사업자에게는 맥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에서 술은 10명 중 8명이 식당이나 바 등 온트레이드(on-trade) 채널에서 유통되는 한편, 맥주를 제외한 외국 술의 판매 가격이 통상 중고가에 형성된 사실을 고려해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트를 포함한 오프트레이드(off-trade) 채널에서 유통되는 외국 술은 맥주처럼 개인이 일상에서 많은 양을 소비하기보단 주로 친목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움트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

유영국 Nice Retail Vietnam 대표

1. 코로나19 팬데믹 속 돋보이는 베트남 경제

참혹했던 전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코로나 백신 공급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지난 해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빴던 기저 효과 때문에 2021년에는 각국 경제 지표가 좋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과 과감한 공공재정 사업을 통해 2020년 2.91% 성장했으며 2021년 올해에는 단순 기저 효과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베트남 국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래 싸움에 새우 복 터진 미중 무역 갈등

2020년 8월 베트남-EU FTA가 발효되고 관세 99%가 철폐되면서 중국을 대신할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베트남의 매력력이 더욱 높아졌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로의 수출은 21년 1분기 기준 28% 증가하였고 수출금액은 100억 달러에 달했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핸드폰, 신발, 섬유류의 수출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EU와의 FTA 발효로 베트남 GDP의 4.6%, EU 지역으로의 수출 금액이 FTA 체결 이전보다 2025년까지 4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3. 팬데믹 속에서 움트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

독일계 시장 조사 기업인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는 ASEAN 주요 6개국 중에 가장 작다. 2019년 기준 스킨케어 부문 USD 3억4,100만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메이크업 부문 1억200만 달러(한화 약 1,200억 원) 합계 약 4억4,300만 달러로 우리 돈 5,000억 원 시장이다. 베트남보다 인구가 2,700만 명이나 적은 태국에 비하면 화장품 시장 규모는 1/6 수준이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의 기대에 비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화장품 회사들의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하지만 베트남 시장은 2010년 2,150억 원의 시장에서 2019년 5,000억 원으로 133% 성장했다. 2020년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직접 살펴본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 확산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화장품 유통망의 현대화와 현지 기업들의 시장 참여로 시장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한 유통망에 비해 베트남 화장품 제조 업체 수준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베트남에는 낮은 수준의 화장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현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제품 라인을 갖추고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번듯한 로컬 화장품 브랜드가 없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베트남이기에 수년 내에 베트남의 이니스프리, 미샤 같은 화장품 브랜드가 출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르네상스는 이제 시작했고 화려하게 꽃 피울 날이 머지않았다.





▶ 한국, 5월 베트남 자동차 부품 수입국 1위 차지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함. 베트남은 ▲ 한국 1억2,500만 달러(전체에서 26% 차지) ▲ 중국 9,800만 달러(20%) ▲ 태국 9,400만 달러(19.5%) ▲ 일본 7,000만 달러(15.4%) 등 각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함.

[Vietnam customs, 6. 21]

▶ 베트남의 3개 은행, 파산 직전의 베트남 항공 대출 패키지 제공 합의

SeABank, MSB 및 SHB는 베트남의 국적기업인 베트남항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7,390만 달러 상당의 대출 패키지 제공에 동의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이 연체중인 부채는 총 2억7,130만달러에 달하며, 연체된 부채가 증가하면서 소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 항공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항공은 MSB에 1,120만 달러, SeABank에 2,000만 달러, 그 외 Vietcombank, BIDV, VietinBank, Techcombank, MB 및 Eximbank 등에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장기부채는 3억9,130만 달러, 단기부채는 2억9,6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6. 24]

▶ 바리아-붕따우성, 고강섬에 신규 공항 건설 예정

바리아-붕따우성은 소음, 공기오염이 심한 붕따우 공항을 대체하는 신규 공항 건설을 최종 승인함. 신규 공항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9조 베트남동, 총 면적은 248.5 헥타르이며, 붕따우 도심 밖 룡선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공항이 완공되면 172헥타르 규모의 기존 붕따우 공항은 베트남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기지 및 군사 비행장으로 운영할 예정임.

[VN Express, 6. 17]

▶ 삼성, 베트남에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기금으로 총 240만 달러 지원

6월 16일, 삼성 베트남은 60억 동(3억 원) 규모의 전문 의료 장비를 기부한 공로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로장을 받음. 현재까지 삼성베트남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예방 기금으로 100억 동(5억 원), 2021년 6월 5일 코로나 19 백신 기금으로 400억 동(20억 원)을 기부한 바 있음. 이번 의료장비 기부까지 포함하여 삼성은 총 560억 동(24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 기금 및 백신 펀드를 베트남에 기부함.

[Vietnam News, 6. 16]



▶ 일본,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백만회 분 지원, 호치민에 배정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팜 민 쯔 총리와 일본 스가 총리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이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 분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함. 일본에서 지원한 백신은 16일 22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으며 17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4차 유행을 겪고 있는 호찌민 시로 이동 될 예정임.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재베트남 일본 상공회의소(JCCI) 소속 36개 기업이 베트남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약 392억 베트남 동을 기부하겠다고 밝힘.

[VTV, 6. 15]

▶ SK 인베스트먼트 비나,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기존 24.02%에서 29.2%로 확대

SK 인베스트먼트 비나는 이멕스팜(Imexpharm Pharmaceutical JSC)의 주식 34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기존 24.02%에서 29.2%로 지분 5.18%를 확대함. 항생제 및 관절 질환 치료제에 강점을 보이는 베트남 5위 제약사 이멕스팜의 올 5개월간 매출액은 2,2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함. 한편 베트남 제약 시장 규모는 2019년 65억 달러에서 2026년 16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 할 전망이다.

[Vietnam Investment Review, 6. 15]

▶ 중국 알리바바, Masan 유통 자회사 The Crown X Corporation에 4억 달러 투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Alibaba그룹과 Baring Private Equity Asia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베트남 마산 그룹의 유통 자회사 'The Crown X Corporation' 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지분 5.5%를 인수함. The Crown X Corporation은 Masan Consumer Holdings와 Vin Commerce의 다수지분을 확보한 유통 자회사임. 마산은 The Crown X Corporation의 지분을 80.2% 소유하고 있음. The Crown X Corporation은 베트남의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 'Lazada'와 협력하여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베트남의 온라인 시장 발전 또한 가속화 할 것을 덧붙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6. 14]

▶ 산업무역부 · 교통부, 전기차에 인센티브 지원 검토

산업무역부는 향후 5년간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특별 소비세와 취·등록세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으며 교통부 또한 전기차 대상 인센티브를 지지한다고 표명함. 이는 베트남 정부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부합함. 현재 9인승 전기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15%이고 취·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10~12%임. 산업무역부는 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10월에 빈그룹의 제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그러나 재정부는 베트남에는 아직 전기차 충전소 시설이 미비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의 4.3%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VN Express, 6. 14]



▶ 베트남 재무부, 거래 지연·중단문제 지속 발생한 HoSE에 행정감사 지시

베트남 재무부는 거래 지연·중단 문제가 지속 발생한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에 행정감사를 지시함. 지난 6월 1일 동 거래소에 오전에만 9억3,500만 달러의 거래대금이 몰리며 거래량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HoSE는 오후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 뒤 6월 2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문 정정·취소 기능을 제한함. 현재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해당 기능을 재활성화 하였으나 일부는 여전히 제한 중임.

[The Saigon Times, 6. 13]

▶ 베트남 코로나19 유행 중 신선식품 온라인 플랫폼 진출 확대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들어진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티키, 센도 등과 협력하여 신선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음. 경제학자 응우옌 찌 히우는 이전까지 베트남 농가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경험이 적어 진출을 꺼려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유통 채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VN Express, 6. 12]

▶ 베트남, 동남아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위

페이스북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촌지역 페이스북 사용자는 메신저와 비디오 기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닷케이아시아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교신한 메시지 수를 바탕으로 최대 교신 메시지 수를 기록한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으로, 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라 보도함. 2020년 기준 베트남 전체 인구 9,800만명 중 농촌인구는 약 6,200만 명으로, 페이스북은 도시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용 비율은 2020년 ~ 2025년 5년간 연 평균 2% 증가에 머무는 반면 농촌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용 비율은 연평균 7%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함.

[VN Express, 6. 9]

▶ 포브스 선정 상위 50개 베트남 상장 기업 전년 대비 시가총액 8.7% 증가

하노이 증권거래소(HNX)와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에 상장된 상위 50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1,219조 베트남 동(531억1,000만 달러)을 기록, 세후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75조 동 을 기록함. 매출액 상위 기업에는 Vingroup, Mobile World, Hoa Phat Group 등이 있고, 신규 진입한 11개사 중에는 Hanoi Beer Alcohol and Beverage(Habeco), BIDV, Becamex IDC Corp 등이 있음.

[VN Express, 6. 9]



▶ 한국 기업, 베트남 동나이 성 투자 45개국 기업 중 투자규모 1위

2019년 한 해 한국 기업의 동나이성 투자규모는 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 5개월 동안 추가로 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 ~ 2021년 5월 한국 기업의 동나이성 투자규모는 총 70억 달러를 기록함. 한국은 동나이 성에 투자한 45개국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투자국 1위에 오름. 주요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창신그룹 (Tan Phu 공단에 1억 달러) ▲ 한솔 테크닉 (Ho Nai 공단에 1억 달러) ▲ 인탑스 (Amata 공단에 3,000 만 달러) 등임. 한편, 한국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동나이 성의 수입국으로 동나이 성의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식물, 의류, 신발, 컴퓨터, 전자 부품, 장비, 도구 등을 생산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며, 월평균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6. 9]

▶ 애플·MS 협력사인 Pegatron, 베트남에 약 10억 달러 추가 투자 결정

Apple, Microsoft, Sony의 주요 공급 업체인 Pegatron은 하이퐁 Nam Dinh Vu 산업 단지에 있는 생산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결정함. Pegatron은 또한 2026 ~ 2027년 사이에 중국의 R&D 센터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임. 이 회사는 작년 9월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 1월에는 하이퐁에 2,290만 달러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음.

[VTV, 6. 9]

▶ 베트남, 코로나19 악재에도 대규모 FDI 자본 유입

애플 협력사인 Foxconn은 타잉화 성에 13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 중이며 러시아의 AVG Capital Partners는 타잉화성 인민위원회와 14억 달러 규모의 양돈 농장 및 가공 공장들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함. 또한 5개 FDI 기업이 빈즈영 성에 총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 빈즈영 성의 승인을 받음.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음 ▲ Taiwan's Far Eastern Group(6억1,000만 달러) ▲ Cheng Loong Group(1억 달러) ▲ P&G(4,480만 달러) ▲ New Motion Private Company Limited(1억8,400만 달러) ▲ ECPVN Binh Duong 프로젝트(3,440만 달러) 등임.

[Nhan Dan, 6. 7]

▶ 철강 가격 상승, 건설업 전반에 영향 미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철강 가격은 1kg당 18,700 ~ 18,800동으로 연초 대비 약 45% 상승하고 2020년 3분기 대비 1.5배 상승함. 이는 중국의 철강 수출 감소와 코로나 이후 회복세로 증가한 철강 수요, 운송비의 증가 및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임. 통상 철강가격은 아파트 건설비의 약 28%, 연립주택 건설비의 35% 정도를 차지하며 철강 가격급증으로 인해 시공사에 약 8%(약 9,000억동)의 손실을 가져옴. 이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증가시키고 분양가로 상승시켜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VTV, 6. 4]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 ☐ Van Phong – Nha Trang 고속도로 건설투자
- ☐ Can Tho 변전소(500kV) 건설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발주처	○ 기관명 :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 현장위치 : Đồng Quang, Quốc Oai (하노이 서부 약 20km) ○ 규모 : 1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F/S 단계 ○ 입찰예정일 : '21. 9월 ○ 세부내용 : - 하노이 서부지역 500k 변전소 신축 프로젝트 - 300MVA 변압기 3개 조합 통한 500kV-900MVA 변전소 건설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부속품 공급 및 설치

- ☐ Van Phong – Nha Trang 고속도로 건설투자

발주처	○ 기관명 : PMU7 (MOT) ○ 연락처 : +84-28-3804-0735
프로젝트	○ 현장위치 : Khanh Hoa성 ○ 규모 : 약 561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PPP (BOT) ○ 프로젝트 단계 : Pre-F/S MOT 제출 완료, 투자자 선정 '22년 예정 ○ 세부내용 - 구간 : Co Ma Tunnel(Van Ninh) ~ 27C번 국도(Dien Khanh) - 규격 : 길이 83km, 4차선, 설계속도 80~120km, roadbed 17m



(입찰정보)

□ Can Tho 변전소(500kV) 건설

발주처	○ 기관명 :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 현장위치 : Can Tho시 Thot Not군 ○ 규모 : 약 11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기술설계 진행 중(~'21.9월) ○ 입찰예정일 : '21. 11월 ○ 세부내용 - 부지규모 : 9.4 ha - Capacity : 1,800 MVA(500 kV 변압기 2개) - 계약형태 : Lump sum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공급 및 설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사무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KOICA”)은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199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KOICA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발맞추어 4P(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지구환경- Planet)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적개발원조(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및 복지증진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합니다. KOICA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범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별협력, 글로벌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민간협력 등의 형태로 세계 53개 협력국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KOICA는 전 세계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사무소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체결한 "무상원조기본협정"에 근거하여 1994년 7월 18일 하노이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호치민 분사무소를 개설하여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KOICA의 최대 규모 협력국이자 중점협력국으로 기관 설립 이래 2019년까지 총 4억 2,488만불(약 4,742억원)을 베트남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41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고등교육, 공공행정, 농촌개발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6건의 프로젝트 사업, 6건의 개발컨설팅 사업, 5건의 사후관리, 9건의 IBS*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대표 사업으로는 베트남 과학기술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현대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 사업』과 베트남 전쟁 상흔 치유 및 극복과 베트남 공공행정 강화를 지원하는 『베트남 지리 및 불발탄 분야 통합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있으며, 이 밖에도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권, 젠더 양성평등 분야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은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KOICA와 민간파트너(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사회적 기업)간 매칭 펀드 방식의 공동 자원 조달을 통해 진행됩니다.

□ 코로나 시대, KOICA 베트남 사무소의 대응사업과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은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여 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외부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 정부에 총 약 480만 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노이바이 공항(하노이시), 떠선녓 공항(호치민시) 등 베트남 주요 공항 10개소에 총 40기의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여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250만 불 규모의 백신 접종용 주사기와 의료폐기물 처리용 세이프티박스 지원, 한국의 백신 접종 프로토콜 전수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 팀코리아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베트남의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베트남 사무소 코로나 대응 사업 】

코이카 ABC 프로그램 베트남

2020년 4분기(12.10 실적 기준)

ABC 프로그램 주요 추진 방향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글로벌연대 강화

베트남 코로나19 대응 ABC 프로그램 추진 현황

지원 현황	지원 예산	수혜자	지원 사업
	\$ 1,844,388	143,221 명	16건

보건

진단키트
\$10,000
850회 / 850명

마스크
\$114,196
113,552장 / 11,182명

감염병 예방 교육/캠페인
\$42,705
3건 / 1,890명

보건/방역키트
\$207,866
15,315개 / 15,315명

사회 경제

생필품/간식식량
\$84,155
10,589팩지 / 6,467명

원격봉사
\$4,392
8건 / 574명

원격교육
1건 / 3,190명

TRUST ODA KOREA Building TRUST

ABC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인 'Building Trust'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Save Lives, Safe Livelihoods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개발협력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입니다.

ABC 프로그램 주요 지원사업 사례

KOICA-UNDP 협력, 베트남 지회 및 불발탄 통합대응역량강화사업(2016-2021)연계, 지회 피해자 대상 방역물품 및 긴급생계물품 (US\$ 130,000) 지원

베트남 지회 및 불발탄 통합대응역량강화사업(2016-2021)연계, 2021년 강에서 물고기를 잡다 지회가 터져 팔 하-하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트링 딘 테오 씨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19까지 더쳐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정말 난다"고 반겼고, 불발탄 소음이 나갔다가 지회를 받아 한쪽 다리를 잃었던 마이 수안 루옥 씨는 "코이카 재할 프로그램에 도전해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데 동원도 보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무연가족 포괄적 농촌개발 프로그램(2019-2023) 연계,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소수민족 대상 방역물품 지원

베트남 북반 지역 중 하나인 무연가족 내, 코로나19 격리시설 (5개소), 보건소(13개소), 학교(32개소) 대상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

KOICA-베트남 여성연맹(VWU) 연수생 통합회, 취약계층대상 코로나19 대응 물품 지원

코로나19 최대 발생지역 취약계층(가정폭력피해 여성 및 이, 저소득 여성 이주여성노동자, 코로나19 실직여성 등) 대상 긴급 구호물품 및 생필품 지원

보사단 활동 연계,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자재 지원

베트남 남부 남부연성 출신현 종합병원 내 중 7개 진료과 대상 25종 의료기자재 62개를 의료물품 지원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ABC 프로그램(2020-2024)



‘코로나19 이종고’ 베트남 지회 피해자 9,100명 대상 방역 물품 및 긴급생계물품 지원(2020.5.25.)



KOICA-베트남 여성연맹(VWU) 연수생 동창회, 취약계층여성 코로나19 대응 물품 지원(2020.4.24.)



스마트 빌딩 & 공장 시스템 IoT 전문 기업, 삼일 CTS (Creative Technology Service)를 소개합니다!

SAMIL CTS VINA (삼일씨티에스 베트남 법인) 한창우 법인장

삼일CTS 소개 및 베트남내 사업현황

1998년 한국에서 설립된 삼일씨티에스는 빌딩 내 설비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빌딩자동화 시스템(BA) 구축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을 목표로 지능화·최적화한 공장자동화 시스템(FA)의 구축, 그리고 공장, 상·하수도 종말 처리장 등의 수처리 자동제어 시스템 부문에서 사업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단말기와 모듈(Module), 오토메이션 솔루션, 스마트 안전 장비, 교통서비스 기기 등 최첨단의 IT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삼일씨티에스 베트남 법인은 2008년 삼성 전자 베트남 생산 공장 설립시 자동제어 관련 건설 협력사로 베트남에 진출하였습니다. 베트남 내 매출 규모가 커지고 베트남을 기반으로 동남아 및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2014년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였고, 2016년 생산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건설법인과 생산법인이 함께 진출해 있습니다.

건설법인은 SEV(SAMSUNG ELECTRIC VIETNAM), SDV(SAMSUNG DISPLAY VIETNAM), SEVT(SAMSUNG ELECTRIC VIETNAM THAI NGUYEN)의 공장 설립 시점부터 자동제어 관련 주 협력사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재까지도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많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포스코 스플렌도라 아파트, 대우 STAR LAKE 아파트, 한화테크윈 CCTV공장 등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진출 기업에 대한 영업 및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업, 일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자동제어 시장 진출을 시작했고, 공장 자동제어에 국한해서营业을 하는 게 아닌 베트남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등 연관된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적인营业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트남 시장의 중점사업으로 안전과 환경과 관련한 오폐수 및 대기 환경 관련 자동제어 사업,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베트남 내수 시장 공략을 계획중입니다.



또한 2016년 베트남 과학기술부 내 INCENTECH 와 MOU 협약을 맺고 생산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대의 Chip Mounter로 구성된 SMD Line을 구축하고 모바일 결제 단말기 월 15,000대 (최대 3만대), 누전차단기 월 50만대, Controller 월 1천대 생산 CAPA 보유하여 한국 본사에서 개발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여 OEM&ODM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법인의 설립과 함께 당사의 자동제어 장비인 AUTOSMART 제품을 베트남에 런칭하여 직접 생산 및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안전장비 및 진동 센서 등 ODM을 통한 생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산법인



자동제어 사무실



2017년 APEC워크숍 초청 및 참가

2017년 8월 호치민에서 진행된 The APEC Workshop on Best Practices Sharing of Standards & Conformity Assessment Implementation on Smart Cities in APEC 2017(스마트 시티 분야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우수 사례 공유)에서 스마트시티 사업분야 스마트빌딩 전문기업의 대표로 초청되어 세미나 기간 동안 베트남 VIETTEL, 중국 HUAWEI, 일본 NISSAN 과 호치민 주정부,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정부 기관들과 함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컨퍼런스 및 정책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도시 개발, 스마트 빌딩 마케팅, 국제 표준 시스템 (ISO, IEC) 구축, 개발 방향 주제 관련 연설을 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방문과 청년 일자리 협약식 참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베트남 방문중에 진행되었던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을 위한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KOTRA, 아세안 한인상의 연합회 공동 주관)에서 당사는 K-MOVE를 통해 가장 많은 한국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일 진행되던 KOTRA 취업 박람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사의 채용 면접 직접 부스를 방문하고 특별면접관으로 하노이 취업박람회장을 방문해 구직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K-MOVE 를 통해 중소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총 11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CSR활동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 공헌을 위한 작은 계획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치민 UEF(재정경제 대학)에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BUSINESS IDEA 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중인 베트남 직원중 일부를 한국 본사에 무료 교육을 보내 기술 교육을 통한 엔지니어로 키우고 있고, 매년 새로운 시스템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 한국 CSR의 날 행사 참여



UEF BUSINESS IDEA 대회 기념사진



현지 장기근속 직원들을 본사로 파견하여 엔지니어로 육성



UEF BUSINESS IDEA 대회 심사중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일씨티에스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베트남에서 진행하다 보니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업은 한국 기업과의 ODM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베트남 및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한국 발주 물량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건설업은 기존에 진행 예정이던 프로젝트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중단되고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인건비 및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 인력을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기를 해야 했기에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은 다행히 2017년부터 한국 직원 없이 베트남 직원 40~50여명을 핵심 엔지니어로 키워 생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화 작업을 완료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담없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고,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를 예상하여 최소 6개월 자재를 미리 발주하고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의 유지보수 2년 계약을 SEV, SDV, SEVT 3개 현장 모두 수주하였고, 대우 스타레이크 아파트 수주 및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현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매출액 100억원에서 30~50억원대까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나, 다행히 베트남 직원들도 당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정비용 절감 방안과 코로나 기간 동안 부족했던 엔지니어 교육 및 시설 정비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건설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을 회사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감염 인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비상대응팀을 편성하고 전 직원 PCR 검사 방안, 감염 및 F1~F2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유망신산업 분야 업체로 선정된, 삼일 CTS

한국 본사는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과 관련하여 유망新산업 분야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 자동제어 건설 분야 중심에서 스마트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관련 IT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통해 2023년 상장을 목표로 회사의 성장 및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베트남 법인도 현재 베트남에서 자동제어 설계, 시공,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서 시스템 개발 및 안전과 환경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빌딩 관련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제품 및 시스템을 통해 더욱더 시장 개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형 AIoT 사업 전개로 사업 확대





2021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신한은행 IPS그룹 투자자산전략부

1. 상반기 베트남 경제 리뷰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제조업(GDP의 23%)의 견조한 성장으로 1분기 4.5%(YoY)의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업종별 1분기 GDP 상승률(YoY)은 제조업 9.5%, 건설업 5.2%, 서비스업 3.3%, 농림수산업 3.2% 순이다. 다만 GDP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숙박 및 케이터링 -4.5%, 문화·엔터 -4.1%, 운송 및 저장 -2.2%)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견조한 수출, 생산 및 소비 회복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대외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은 31%(1~5월, YoY) 증가하였다. 다만, 제조업 생산 확대에 수입이 증가하며 (+36%) 무역수지는 3.6억불 적자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경제 정상화에 따른 베트남 생산 및 소비 회복으로 상반기(1~5월, YoY) 산업생산은 10%, 소비판매는 7.6% 증가하였다. 세계적 모범 방역국으로 분류되던 베트남은 최근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Lockdown 우려감이 확대 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밀집된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확대된 4차 확산 영향으로 국내 공급망 (Supply Chain)훼손이 우려된다. 박장, 박닌, 빈푹, 타이응웬, 하장 등 북부 전자 클러스터 생산 전자제품은 베트남 수출의 32%,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상반기, 코로나 19 확산 속도에 비해 베트남 백신 접종 속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베트남 첫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3/8일) 이후 정부의 다양한 백신 (모더나, 화이자, 스푸트니크V등) 확보 노력에도 백신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0명당 백신접종비율(6/9일 기준)이 전세계 평균 12%이나 아시아는 7%, 베트남은 1%로 미흡한 상태이다.

2. 하반기 주요 이슈

(1) 더욱 견고해질 베트남의 실물 경제

베트남의 가계소비 및 내수 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베트남의 가계소비는 7.0%(YoY) 증가율을 기록하며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1년은 전년대비 실업률 하락(2.2%), 물가 상승(3.5%) 예상되나 인플레이 압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 내수 회복이 기대 된다.

또한 하반기 베트남 제조업 생산은 대내외 수요 회복이 가속화 되며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된다.



신규 5개년('21~'25)계획 첫 해인 만큼, 제조업 비중 25% 이상 등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임 지도부의 의욕적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상반기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베트남 제조업 경기도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대외 여건(수출+FDI)

글로벌 주요국들의 조기 경제 정상화는 베트남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EU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 비율이 상승하며 하반기 글로벌 수요 회복 및 베트남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주요 국가별 베트남 수출 비중_ '21년 1분기 기준 : 미국 29%, 중국 17%, EU 13%, 영국 2% 등) 대외 의존도 높은 베트남 경제구조상 수출 확대는 하반기 베트남 경제를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점점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DI는 2020년에 코로나 19 여파로 26% 역성장을 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 (1~5월)은 140억불(+0.8%, YoY)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첨단산업 중심 유치 전략 (from Quantity to Quality)에 따른 인텔(4.8억불), 폭스콘(7억불) 등 첨단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도 기대된다.

(3) 다시 속도를 높이는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

코로나 19로 지연되었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되며 경제 전반으로의 낙수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1~'25) 인프라 개발에 약 2,750조 동 (1,193억불) 투입 예정으로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개발 주요 수혜 업종인 건설업(GDP의 5%)은 21년 8.2%(YoY), '22~'30년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PPP(민관합작투자사업)법 시행을 통해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베트남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 투득(Thu Duc) 신도시 개발도 본격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호치민시 2군, 9군, 투득군을 통합하여 건설될 예정으로 신도시 개발 관련 교통인프라 투자계획도 병행 된다. (향후 10년간 약 903조동) 신도시 완공 후에는 인구 150만명, 호치민시 GDP의 1/3, 베트남 총 GDP의 7%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부가 주도하는 베트남의 성장 정책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경제 개발 정책 본격화도 기대된다.

제13차 전당대회(1/26일~2/1일) 및 제15대 국회 선거(5/23일)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하반기 경제 성장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5개년('21~'25) 경제 개발계획 및 적자재정(GDP의 4%)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중인 디지털 경제가 베트남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년 기준 베트남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규모는 140억불이나 '25년까지 5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0년까지 10만개의 하이테크 기업 육성, IT 분야 글로벌 TOP 300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도 '2025년 은행 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하여 전자결제 50%, 디지털 거래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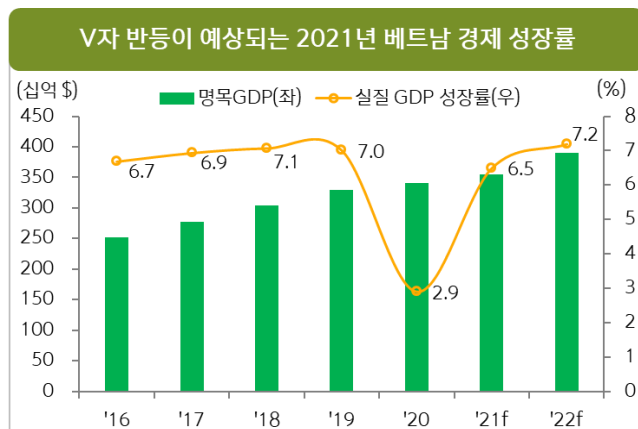


3. 하반기 베트남 경제 전망 : V자 반등 예상되나 안정적 백신 확보가 관건

2021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는 미국·EU등 글로벌 주요국 경제 및 수요 회복 영향에 따라 V자 반등이 전망된다. '21년 글로벌 경제 및 수요 회복 전망은 수출 비중이 높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여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베트남 GDP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IMF 6.5%, WB 6.7%, ADB 6.7%, 골드만삭스 6.9% 등)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관광업(GDP의 9%) 회복이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코로나 19 확산 억제 및 안정적 백신 확보 여부가 하반기 베트남 경제 반등의 핵심이다.

베트남 보건부 질병통제위원회는 베트남에서 인도·영국 변이 특성이 합쳐진 전파력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지난 5월 29일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에는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반기부터 백신 보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 2021년과 2022년은 예측치(f: forecast)
자료: IMF, 투자자자산전략부

2021~25년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계획 주요 목표	
부문	정부 목표
경제	- 연간 평균 GDP 성장률(5년): 6.5~7% - 1인당 GDP: 4,700~5,000\$ - 연간 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5년): 6.5~7% - 도시화율: 45%, - GDP대비 제조업 비중 25% 이상 달성 - GDP 대비 디지털 산업 비중 20% 이상 달성
사회	-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비율 25% 달성 - 숙련노동자 비율 70% 달성, - 도시 실업률 4% 미만 유지 - 상대적 빈곤율 연간 1~1.5%p 지속 감소 - 인구 1만명 당 의사 10명, 병동침대 30개 배치
환경	- 산업단지 발생 폐수의 92% 정화 - 국토면적의 42% 삼림화 - 양질의 물 공급 비율 확대: 도시 95~100%, 농촌 93~95%

자료: Kotra, 투자자자산전략부

4. 금리 : 물가 및 신용 수요 증가 전망에 완만한 상승 시도할 것

하반기 물가 상승 우려에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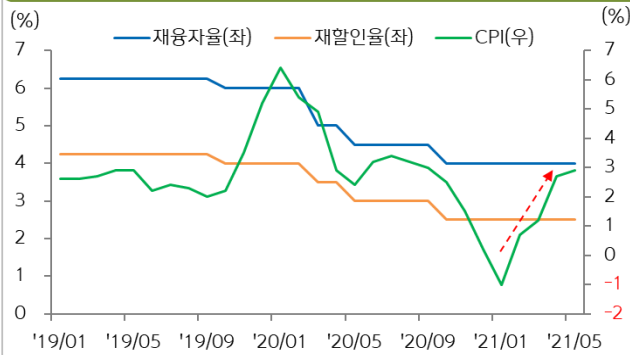
'21년 CPI 3.5% 증가 예상되어 중앙은행 관리 목표 (4.0%) 하회 예상되나 최근 물가 상승세 감안 시 추가적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영향으로 정책 금리는 유지될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확장적 재정 및 신용수요 증가 영향에 상승이 예상되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듯하다. (국채 10년 2.0~2.5%) 중앙은행의 신용 확대 정책 (+12% 목표) 및 1분기 양호한 신용 성장(2.9%, YoY)으로 하반기 신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자재정(GDP 4%)과 신용 증가에 따른 국채 및 은행채 발행 확대 예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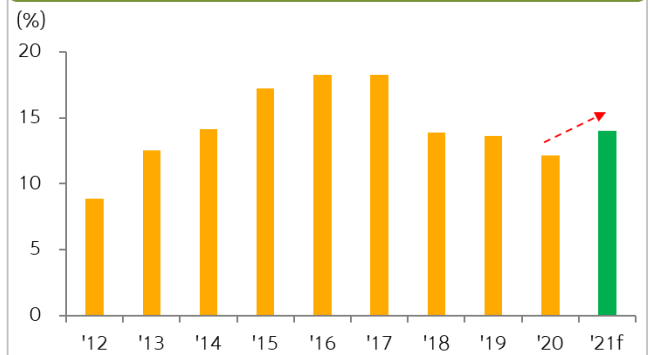
Shinhan Bank

물가 상승 우려에 정책금리 추가 인하는 어려울 듯



자료 : Bloomberg, 투자자산전략부

신용수요 증가 예상되어 금리의 하방 경직성 유효할 듯



※ 베트남 연도별 신용성장률(Credit Growth), '21년 추정치(f: forecast)
자료 : SBV, Fitch Solutions, 투자자산전략부

5. 환율 : 동화 강세 예상되나 4분기로 갈수록 강세 압력 완화될 듯

상반기 글로벌 달러 흐름에 연동되며 동화는 N자형 흐름을 나타냈다.

동화 가치는 연초 대비 0.2% 절상, 변동폭은 0.6%로 주요 신흥국 통화 (위안화 3%, 인니 루피아 5% 등) 중 가장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년 12월 미국이 환율 조작국 조정 이후 연초까지 강세를 보이다 이후 달러 흐름에 연동되며 N자형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동화는 전반적인 강세 흐름 예상되나 4분기로 갈수록 강세 압력은 완화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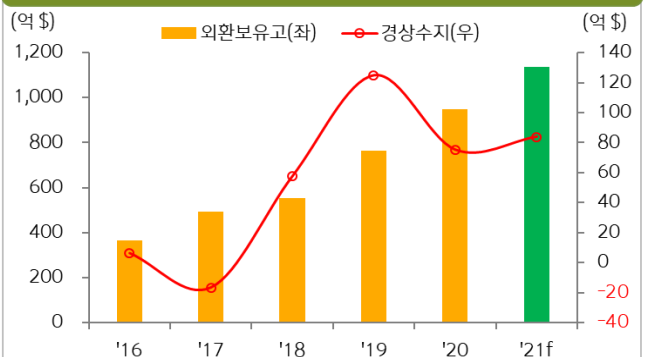
(달러/동 22,800~23,200) 외환보유고(+20%) 및 경제수지(+12%) 증가, 美 환율조작국 해제에 따른 대미 수출 부담 완화, FDI 확대 등은 동화 강세를 지지 하나 다만, 4분기부터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및 달러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 동화의 강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된다.

미 달러 흐름에 연동되며 N자형 흐름 보인 동화



자료 : Bloomberg, 투자자산전략부

양호한 외환보유고 및 경상수지 흐름은 동화에 긍정적



※ '21년 2월 현재 외환보유고 977억\$, 연말 1,137억\$ 전망, f: forecast(전망치)
자료 : IMF, 언론종합, 투자자산전략부



6. 주식 : VN지수, 다소 부족해 보이는 상승 여력

베트남 주식시장은 국내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 상승 견인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1,300pt를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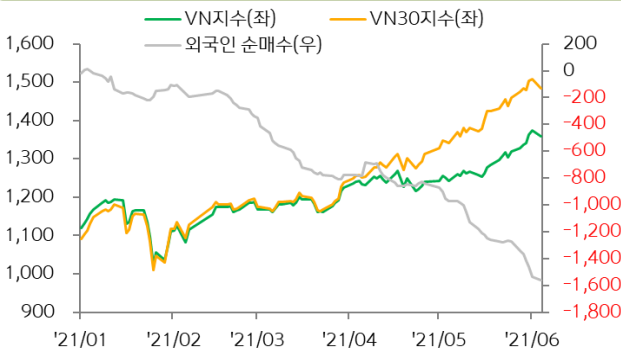
VN지수는연초 이후 21%상승하며 신고가를 기록 (1,374, 6/4일)하였고 인프라 수혜 업종인 금융, 부동산, 소재 업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외국인 순매도 (15.7억불, 6/14일)에도 개인 투자자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를 상쇄하였고, '21년 1분기 양호한 기업 실적도 증시를 지지하였다.

다만 상승여력은 다소 부족해 보이고, 美 테이퍼링 이슈 부각될 4분기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VN지수 1,200~1,400 pt) 국내 인프라 개발 본격화는 금융, 부동산 섹터에 긍정적이고 양호한 상장기업 이익 전망 및 국내외 경기 회복 등 증시 환경은 우호적이다. 다만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 외국인 순매도 (개인 비중 확대), 美 테이퍼링 이슈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 등 대내외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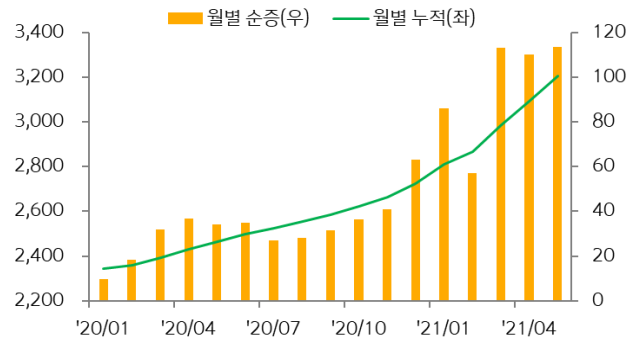
증시를 이끌 새로운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美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화될 4분기부터 변동성 확대될 전망이다.

VN지수, 대형 우량주 중심 상승 but 외국인 순매도 지속



※ VN30지수: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대표 종목 30개로 구성(시가총액,유동성상위30개)
자료: Bloomberg, 투자자산전략부

대외 변수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 비중 확대는 잠재적 위험 요인



※ 개인 투자자 증권계좌 신규 개수('21.5월 신규 개수 '20.5월 대비 234% 증가)
자료: 베트남 증권예탁원(VSD), 투자자산전략부

<끝>



베트남 현지인 비사무직 직원 채용 시 주지사향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甲사는 베트남 내 H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한국 중견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투자기업이다. 최근 법인장 변경에 따라서 기존 근무 중인 현지인 차량 운전기사와 법인과의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 기준 1일 10시간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단, 휴식시간 1시간 제외), 주 60시간 근무 현황이 베트남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법인 사무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 중인 현지인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체결 하에 청소 및 기타 잡무 처리 중에 있는 바, 노무당국 고발 시 법인에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현지인 채용 시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금번 칼럼에서는 이에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상 현지인 비사무직원 채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지인 운전기사 근무시간 관련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주 단위로 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베트남 노동법상 정규 근로시간 외에 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상 위 정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1) 근로자의 동의 하에, 2)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제한을 준수 하에, 3) 1개월 동안 연속하여 많은 날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한 시간 수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제한 또한 준수하여야 하는 바, 1일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휴일, 신청, 구정 연휴,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아가, 1개월 초과근무시간은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초과근무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베트남 정부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최대 300시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함)



ALF

법무법인 아세안

따라서, 甲사와 해당 운전기사 직원간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조건은 명백히 베트남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차후 노무당국 적발 또는 신고 시 관할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 및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상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운전기사의 1일 최대 근무시간(정상 및 초과근무시간 포함)은 10시간이어야 하므로(2008년 교통법 65조항) 甲사는 해당 운전기사직원에게 대하여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현지인 청소인력 채용 관련 향후 리스크 가능성

甲사에서는 현지인 청소인력으로 1명을 비공식 채용(근로계약서 無)하여 지속적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으며, 해당 직원이 사무실 내 기타 잡일(청소포함) 뿐만 아니라, 은행심부름 업무까지 종종 시킨 바 있는 바, 이에 대해 베트남 노동법상 문제 소지가 우려되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베트남 노동법상 3개월 미만 기간의 근로계약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상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후 노무당국의 당해 직원 채용 사안에 관한 조사 시, 청소인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甲사와 해당 청소직원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불법채용의 점에 대한 처벌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 및 주의를 요한다.

나아가, 甲사와 해당 청소직원간 근로관계은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계약 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甲사는 베트남 노무당국 적발 시 1) 고용계약서 미체결, 2)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회피, 3) 기타 관련 세금 납부의무 회피의 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점 주지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기타 현지인 직원 채용 시 지켜야할 사항

베트남 내 현지직원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성격, 업무의 지속기간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이 3가지 근로계약의 방식 중 하나를 정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점에 주지하여야 한다.

- 1)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일을 정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업무 종결 시점을 확정할 수 없거나 36개월 이상의 시한이 필요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한다.
- 2)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이는 업무의 종결시점이 확실하거나 업무가 종결되는 시한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있는 업무에 적용된다.
- 3)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이다. 12개월 이상 계속될 특정 작업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는 점에 주의하도록 한다.



ALF

법무법인 아세안

금번 질의 내용과 같이 베트남 현지직원의 채용 시 (또는 유지 시) 근로계약의 유형(유기 또는 무기)과 관련된 질의 내용이 집중되고 있는 바, 베트남 내 근로계약의 종류에 맞지 않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위반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최소 100만동에서 최대 2,000만동까지 페널티가 처해질 수 있음을 주지하고, 반드시 정확한 유형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권고된다.

나아가,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노동법 규정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용자에게 의해 작성된 사내 임금표, 임금등급 상의 업무 또는 직책의 기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 수준을 근로계약서상 기재가 요망된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각 수당 항목(금액)을 기재하되, 합의한 임금 수준에 아직 충분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정할 수 없는 근로환경 요소, 업무의 난이도, 생활조건을 보충하기 위한 각종 수당 항목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지하여 현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변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베트남 내에서도 차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공단의 한국 회사들에 무작위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의 영업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이런 편지를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웃픈’ (웃기면서 슬픈) 현실인 것 같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반중감정을 피하고 한류를 이용하려,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한글로 표기된, 누가 봐도 한국 제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국산인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베트남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민법, 형법 등에 따른 행정·민형사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저작권 침해

한국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과 이미지의 모조품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8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해당 한국 기업들은 행정 기관을 통한 행정적 제재나 법원을 통한 제재를 구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행정처분은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베트남에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가 훨씬 쉽다. 베트남에서 저작물 등록 소요 기간은 7~21일 정도면 되고 비용도 저렴하다. 특히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금방 베트남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니 베트남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이미지와 디자인을 베트남에 저작물로 등록해 놓기를 권한다.



2. 부정 경쟁 행위

베트남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행위는 다음의 각 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경쟁법 제40조와 시행령 71/2014/ND-CP 제28.2조: 포장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사용
- ▶ 경쟁법 제45조: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특히 디자인 및 제조원에 대한 허위정보)
- ▶ 지식재산권법 제130.1조: 상품의 제조원, 용도, 품질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업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경쟁법에 따라 베트남 경쟁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및 행정처분 결과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3. 상표권 침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29.1d 조 (상표, 상표명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서는 주지상표(周知商標,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선등록 주의이고 심사 기간도 12~18개월로 오래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기를 권한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베트남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4. 상품 라벨 표시 문제

베트남 시행령 43/2017/ND-CP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상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확인한바 베트남의 많은 모조 한국 제품에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정보들이 없었다.

- ▶ 제품 설명 부재, 경고문 부재,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 부재, 유통기한 표시 형식에 대한 베트남어 설명 부재
- ▶ 제품명에 성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성분 목록에 용량에 대한 정보 부재

이를 근거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관리국 등 관련 당국에 권리 침해자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품 품질 문제

모조품(특히, 화장품)의 샘플을 수집하여 품질과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하고, 만약 금지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다면, 이를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6. 소비자 보호

제품의 품질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 발표, 게시, 홍보하거나 약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베트남 소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비자는 권리침해자/모조품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베트남 진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했고, 이런 노력 덕분에 외국 기업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우습게 보고, 대놓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은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言)을 남겼다. 권리가 있어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 기업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베트남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



지식재산권 상담사례

KOTRA 호치민 IP-DESK

KOTRA 해외지재권실에서는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하여 11개국 17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1. 베트남 진출 전에도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베트남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진출 전에도 한국 회사(또는 한국인 개인)의 이름으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에 등록된 많은 지식재산권이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 절차가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및 상표나 디자인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침해는 베트남으로 물품 거래를 한 직후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사전 진출 준비 단계에서 한국 투자자 명의로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상표나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진출 전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사례:

‘19년 한국업체 A사는 호치민 IP-DESK를 통한 상표등록 진행 중 유사상표검색 과정에서 몇 차례 거래가 있었던 현지 바이어가 ‘17년에 한국업체 상표를 선출원한 사실을 발견함. A사는 베트남 바이어에게 연락하여 양도 요청을 하였고, 바이어에게 양도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A사는 호치민 IP-DESK를 통해 추후 진행관련 도움을 받았으며, ‘20년 베트남 지식재산국을 통해 양도 이전등록이 허가됨.

베트남 내 바이어 혹은 기타 제3자에 의한 상표선등록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임. 선출원 또는 상표의 출원인이 자신과 특수 관계인(바이어, 대리인 등)일 경우,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출원 중인 상표라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을 거절 시킬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된 상표라면 취소심판 등을 통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이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가장 빠른 해결 방안으로는 선출원인과 직접 협의하여 선출원 상표의 취소신청 혹은 해당 출원인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이 있음.



2.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정부 정책과 보호 정도는 어떠한가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국가의 원칙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각 단계의 인민 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나 정부의 관리 수준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보호 조치도 베트남에 등록이 완료된 상표나 산업디자인,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침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각 권리의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베트남 지식재산권청의 실제 업무 처리 기간이 법정된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이미 등록한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베트남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법제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식재산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서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리조약상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산업디자인과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이 다른 국가에서 이미 등록한 상표를 베트남에 등록하는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베트남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한국 출원/등록 상표를 기반으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통해 베트남 내 상표 출원 및 보호 가능함.



4. 베트남에서 한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베트남에서 출원하는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영문과 베트남어가 아닌 다른 외국 언어인 경우, 해당 언어는 도형으로 간주되고 문자로서의 의미는 상실합니다. 즉, 한국어는 상표견본에 그려진 도안의 일부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포함하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 동일한 한국어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한국어가 시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선, 면, 색의 측면에서 다른 도안으로 볼 수 있다면 베트남에서 제3자의 상표는 선 등록된 한국어 상표와 다른 것으로서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례:

KOTRA IP-DESK 상표출원지원 신청기업 B사는 한글 상표출원을 희망함. 호치민 IP-DESK는 베트남 내 상표출원의 경우 영어와 베트남어 이외의 문자는 모두 도형으로 간주되어 문자로서 의미를 상실하며, 제3자가 동일한 한글 상표를 다른 폰트로만 출원하더라도 이에 대한 침해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과 한글 상표 출원 시 영문 또는 베트남어를 추가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함. 신청기업 A사는 한글 상표 대신 보호 범위가 더 넓은 영문 상표 출원을 진행함.



노무관련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질문과 베트남측의 답변

(2021년 6월 10일자 제47-2021/MOLISA호 공문에 첨부됨)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이재국 고용노동관

jglee19@mofa.go.kr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관련>

1. 한-베 전문가 MOU 효력 부활

노동보훈사회부는 상기 내용에 관한 2021년 5월 13일자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발송하였음

<대사관 추가안내> 베 정부는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통해 우리대사관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경력 관련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단체·개인을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하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라고 함)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년수)은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경력에 대해 외국의 주재 기관·단체·기업의 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대사관 추가안내>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서도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한편, 우리대사관은 베트남기업 또는 본사가 베트남에 있는 우리기업 등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근무경력에 애로를 겪는 우리교민 지원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임(~7월초)

3. 대학졸업증명서(학위증) 관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a호에 따르면 전문가는 학위증이나 효력이 동등한 증명서 및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최소한 3년 경력을 가져야 함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전문가 증명서는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년수 확인에 관한 외국 주재 기관·단체·기업의 문서이며, 적격한 대학졸업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 의견과 우리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베 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는 지방 시·성에 대학학위증과 졸업증명서가 동일함을 인지하여 노동허가 등에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공문(제425/CVL-QLLD호)를 송부함(공문 및 한글번역: 첨부3 및 첨부4)



4.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할 기관은 기업·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현황, 직무, 경력에 관한 요청사항,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 불가 이유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검토 및 승인함. 따라서 각 시점에 기업·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은 기업·단체의 상황 및 해당 지역의 근로자 공급 수요 역량에 따라 다름

5.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을 소재지로 변경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d호 및 제30조제1항제a호에 따르면 정부, 정부 총리, 각 부처가 설립을 승인한 기업협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에서 진행하고, 성급,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이 설립을 승인한 기업의 경우 노동허가 발급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c호 및 제30조제6항제a호에 따르면 관할기관의 설립 승인을 받는 기업, 기관, 단체 대표사무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함

6. 노동허가 발급 관련 명확한 행정절차 요청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해당하는 고용 분야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1년 5월 6일자 제526/QD-BLDTBXH호 결정문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 11개를 발행하였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근로시간단축의 중복부여 여부>

1. 노동법 제137조2항에 따르면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보다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권리·이익의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매일 1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의 태아 보호를 위한 것임
2. 한편, 노동법 제137조4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1일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일 60분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전액을 지급 받습니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여성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가지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첫 12개월 간 모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따라서 상기 제137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두 가지의 제도·정책은 서로 다른 것임.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이 두 가지 제도·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노동법안 수립 과정에서 상기 규정은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 기업, 관련 개인·단체의 컨센서스·지지를 받았음.



<퇴직금 관련>

1. 필수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납부 일시 중단 및 감면에 관한 법률 규정

- 1.1 사회보험 필수 가입은 사회보험법 규정 및 안내문에 따라 이행되며 그 중 필수적 사회보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만 있음(사회보험법 제88조 및 필수적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5년 11월 11일자 제115/2015/ND-CP호 시행령 제16조 참고)

코로나19 팬더믹이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방안에 관한 2020년 4월 9일자 제42/NQ-CP호 의결을 발행하였고 동 의결 내용 중 목록Ⅱ 1호에는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42/NQ-CP호 의결 이행 안내를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납부 일시 중단 안내에 관한 2020년 5월 4일자 제1511/LDTBXH-BHXH호 공문을 발행하였음. 동 공문 목록4 제b호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 시 납부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함

현재, 병가·출산·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음

- 1.2. 실업보험 가입은 고용법 규정 및 이행 안내문에 따라 이행됨. 동 문서에는 실업보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실업보험 감면에 관한 공문 등이 없음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에 관한 법률 규정

노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 근무한 총 기간에서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실업보험 납부기간 및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뺀 기간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사용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중단은 노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3.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노동법 및 이행 안내문에는 인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도제훈련·인턴십 및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61조 및 제62조)이나 수습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만 있음.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국은 의견이 없음

<대사관 추가안내> 2021.2.1.부터 시행되는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조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제145/2020/ND-CP호) 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총 근무기간에 삽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을 총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있었음. 개정법령 시행(2021.2.1.)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베트남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 추가안내 하도록 하겠음

4.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 관련

양측은 동 협정 준비·협상 과정 내내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가장 조속한 시일 내 내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사관 추가안내> 외국인의 의무적 사회보험 관련 시행령(제143/ 2018/ND-CP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중 퇴직연금계정(사용자 14%, 근로자 8%)은 2022.1.1.부터 적용될 예정임. 우리정부는 ①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 납부 면제, 즉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근로자의 베트남 퇴직연금 납부 면제(중복가입 배제)와, ②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연금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현재 베트남 총리 보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체결을 위한 베트남 내부절차는 국회상무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음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서면답변) 공유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타이빈성

□ 타이빈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1,546.54km ² • 인구: 1,870,000명 ('20년) • 도시거주 비율: 12%
지정학적 위치	• 타이빈성은 홍강 삼각주의 남쪽에 위치한 해안 평야 지역으로 3면은 강, 한 면은 바다와 접해 있음 • 동서의 거리는 54km이며 남북의 거리는 49km임 • 동쪽으로는 톤킨(Tonkin)만, 서쪽으로는 하남(Ha Nam)성, 남쪽으로는 남딩(Nam Dinh)성, 북쪽으로는 흥옌(Hung Yen)성, 하이즈엉(Hai Duong)성 및 하이퐁(Hai Phong)시와 접해 있음
접근성	• 타이빈성의 중심인 타이빈시는 하노이 수도에서 남동쪽으로 110km, 하이퐁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20년)	• GRDP 성장률: 3.23% • 1인당 GRDP: US 2,104 달러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0년)	• 총 수출액: US14.56억 달러 / 총 수입액: US12.46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3.9%), 서비스업(3.4%), 농수산업(3.4%)
산업구조('20년)	• 공업/건설업: 40.9%, 서비스업: 32.4%, 농수산업: 26.7%
노동여건('20년)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60.8% •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6.5%
최저임금('20년)	• 타이빈시: VND 3,430,000 = US 149 달러(3급지) • 모든 현: VND 3,070,000 = US 134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0.12월 기준)	• 타이빈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92개 프로젝트, 8.59억 달러 • (한국) 2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77.0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타이빈성에 투자한 국가(5개) 중 투자 2위(1위 대만)

□ 투자환경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지역들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노선은 아래와 같이 형성되어 있음.
 - 남딩-타이빈-하이퐁을 연결하는 10번 국도
 - 타이빈-하남 연결 국도(2022년 완공 예정): 하노이 수도권 제5외곽 순환도로와 38B번 국도,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라띠옌(La Tien) 다리를 연결함
 - 해안 도로: 타이빈성 타이투이(Thai Thuy)현 및 띠옌하이(Tien Hai)현에서 하이퐁성 락후옌(Lach Huyen)항구까지의 길이는 45km



- 타이빈 경제구역과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5B번 국도)
- 교통체계는 전국 및 인근 지방, 특히 하이퐁시 및 꽝닌(Quang Ninh), 흥옌(Hung Yen), 하이즈엉(Hai Duong), 남딩(Nam Dinh), 하남(Ha Nam), 닌빈(Ninh Binh) 및 타잉화(Thanh Hoa)성 등과 연결되어 편리함
- **(해로)** 타이빈성의 주요 항구는 디엠디엔(Diem Dien) 항구임. 또한 하이하(Hai Ha) 석유수출입 항구도 있음 (베트남 해안항구의 터미널 리스트 공지에 대한 교통부의 제761/QĐ-BGTVT호 결정서 (2020.04.24)에 의함). 주요 운송상품은 석유, 도자기, 의류 등임. 항구로 연결되는 주요 노선으로는 10번 국도, 39번 국도, 37번 국도, 해안 도로가 있음.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관광 잠재력



타이빈성에 위치한 꼰반(Con Vanh), 꼰덴(Con Den), 동쩌우(Dong Chau) 등의 생태관광지는 닌빈(Ninh Binh)성에서 꽝닌(Quang Ninh)성까지 연결된 생물보호구역 내 해안 맹그로브 숲 관광지임. 또한 타이빈성에는 3,000개 이상의 문화유산이 있으며, 그중 2개의 특별 국가 문화유산유적지로 께오 파고다(Keo Pagoda) (부투(Vu Thu)현 주이넷(Duy Nhat)마을) 및 쩐(Tran) 왕조들을 숭배하는 사원과 무덤(흥하(Hung Ha)현 띠엔득(Tien Duc)마을)이 있음. 또 다른 관광 명소는 동방(Dong Bang)사원, 띠엔라(Tien La)사원, 아사오(A Sao)사원 등이 있음.

❖ 천연 자원

타이빈성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음. 대륙붕에 있는 천연 가스 자원(매장량 100억㎥ 이상)은 베트남 석유가스공사(PVN)에서 개발 하였으며, 연 가스 생산량은 2억㎥ 임. 천연 광천수 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Vital Natural 미네랄 워터, Tien Hai 미네랄 워터와 같은 유명 브랜드로 생산되고 있음.



○ 경제구역, 공단 개발을 통한 산업 개발 동력



리엔하타이(Lien Ha Thai) 산업 단지의 모형도

- 경제구역: 1개
- 공업 단지: 타이빈성은 8,704.65ha 면적에 걸쳐, 28개 공단을 계획하고 있음. 경제구역 밖에 있는 6개 공단은 기반 시설이 완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경제구역 안에 있는 22개 공단은 개발계획 완료
- 산업 클러스터: 성 전체에 49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548.6ha임. 그중 45개 산업 클러스터는 이미 구축되었고, 총 면적은 2,380.7ha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I. 타이빈 경제구역(타이투이(Thai Thuy)현 및 띠엔하이(Tien Hai)현 의 30개 마을 및 1개 타운)

1. 법인세

- 15년간 10% 우대 세율
- 최초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2. 토지세 (지방 인민위원회와 직접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최대 3년간), 관할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적용
- 기본 건설 기간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13년간 면제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7년간 면제



c)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 투자 우대 특별 분야의 프로젝트
- 관할 주정부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경제구역내 근로자 및 노동자를 위한 주택건설, 또는 투자자로부터 토지를 전대 받아 진행하는 경제구역내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택임대 가격에 토지임대료를 포함 할 수 없음
- 경제구역에서 공공 비영리사업 건설을 위한 토지
- 도로운송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경제구역에서 대중교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지 보수 및 수리센터, 주차장 (발권 구역, 관리 구역, 공공 서비스 구역 포함) 건설을 위한 토지
- 경제구역내 상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 다음 용도의 토지를 포함함: 상수도 및 수처리를 위한 공사, 배관 및 상수도 배관, 상수도 관리 및 운영 사무소 지원 공사 (행정, 관리, 운영 사무소, 공장, 재료 및 장비 창고)
- 경제구역에서 기능 영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투자자: 건설 중 토지임대료 면제 (최대 3년간), 이후 15년간 추가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및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은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름

3. 비농업 토지사용세(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할 때와 투자자로부터 토지를 전대할 때 토지 전대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임차인이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때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비농업용 토지사용세 면제

II. 경제구역 외부에 있는 산업 단지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타이투이(Thai Thuy)현 및 띠엔하이(Tien Hai)현에 속하는 경제구역 외부에 있는 마을들)

1. 법인세

- 10년간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2. 토지세 (지방 인민위원회와 직접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최대 3년간), 관할 주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면제
 -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면제
 - 특별 투자 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면제



3. 비농업 사용세면제(지방 인민위원회와 직접 토지 임대계약을 할 때나 투자자로부터 토지를 전대할 때 토지 전대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임차인이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할 때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비농업 토지사용세 50% 감면

II. 산업 클러스터

1. 토지세(지방 인민위원회와 직접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 7년 면제
-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사업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2. 비농업 토지사용세(지방 인민위원회와 직접 토지 임대계약 할 때나 투자자로부터 토지를 전대할 때 토지 전대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임차인이 비농업용 토지사용세를 지불한다는 데 동의할 때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특별 투자 장려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면제 (프로젝트 전체 기간)
- 투자 장려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50%감면 (프로젝트 전체 기간)

□ 외국인 투자현황

○ 타이빈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D)
1	TAV Co., Ltd	• 수출용 의류 공장, 규모는 셔츠 240만개, 바지 12만개	홍콩 - 중국	67,326,000
2	Toyoda Gosei Co., Ltd	• 자동차 부품 공장, 자동차 핸들 스티어링 휠, 에어백 제작	일본	60,000,000
3	Shengli Vietnam Special Steel Co., Ltd	• 강철 빌렛 생산: 600,000톤/년 • 압연된 합금강: 200,000톤/년	중국	53,939,394
4	Dong Tin Ho Nam Group Co., Ltd	• 원사 생산 공장 투자 프로젝트 - OE 원사: 8,750,000 - CD 원사: 25,985,000	중국	48,879,310
5	Yazaki Hai Phong Co., Ltd	• 자동차 전기 케이블 제조	일본	35,000,000
6	U-Li (VN) LLC (Chin Pech Co., Ltd)	•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장비 제조 투자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 제조	대만	30,800,000
7	Maxport Limited Co., Ltd (Vietnam)	• 첨단 의류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650,000 재킷/년)	홍콩	29,741,379
8	Cotec Plastic Co., Ltd	• 연간 72만 제품 규모의 PVC 의료용 장갑 생산	대만	29,600,000



9	Neon Vietnam Development	• LED 조명등 및 장식등, 무대 조명등, 전통적인 미니 조명등 및 모든 종류의 부품 생산 (연간 용량: 20,000톤)	홍콩(중국)	28,000,000
10	Vietnam Fortress Tools JSC	• 수공구, 야외 정원 가구, 금속 가구 제조	중국(대만)	N/A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구분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입주율(%)
1	경제구역 안에 있음 (설립 결정 승인)	리엔하타이 (Lien Ha Thai)	2021	588.84	0
2		Tien Hai (띠엔하이)	2017	466	52.7
3	경제구역 밖에 있음	송짜 (Song Tra)	2009	150.48	41.4
4		응웬득까잉 (Nguyen Duc Canh)	2005	75.06	100
5		푹카잉 (Phuc Khanh)	2003	159.03	100
6		꺼우응인 (Cau Nghin)	2013	211.72	24.7
7		자레 (Gia Le)	2010	84.7	100
8		타코 (Thaco)	2019	194.36	100

* 또한 경제구역 안에는 건설 세부계획 수립 중인 22개의 산업 단지가 있음

○ 경제구역 (타이빈 경제구역)

- 설립년도: 2017년
- 면적: 30,583ha
- 현황: 인프라 건설 중
- 담당자: 성 경제구역 및 공단관리위원회 – Mr. Pham Tung Lam (국장)





□ 투자 유망분야

1. 농업

- 유기 농업 분야 혹은 생명공학 분야
- 전문 농업단지 및 첨단 응용 농업단지 개발, 베트남 우수농산물 인증(VietGAP) 혹은 글로벌 농작기준(GlobalGAP)을 적용한 유기농 혹은 브랜드 농산물 생산
- 가치사슬을 연결하여 대규모 가축농장과 기업들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 집약적, 반집약적 양식 등 첨단 기술 적용 분야

2. 산업

- 성 계획에 따라 가공 산업, 부품소재 산업, 농업을 위한 산업, 가스 전력 및 풍력발전
- 명성과 브랜드를 가진 국내외 기업, 대규모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및 글로벌화된 환경친화제품 분야

3. 서비스-상업

- 쇼핑몰, 슈퍼마켓 및 시장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
- 도매 시장 및 물류 서비스 개발
- 전자 상거래, 국내 무역, 생산-유통 연계 체인 관련 분야
- 대규모 현대적 관광 인프라(Con Vành, Con Den 생태관광지 개발 등) 관련

□ 타이빈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투자 상담 및 진흥 센터 – 기획투자국	Mr. Dang Thai Son (센터장)	• Tel: +84 913 291 516 • Email: ipcthaibinh@gmail.com • Website: sokhdt.thaibinh.gov.vn
타이빈성 공단관리위원회	Mr. Pham Tung Lam (국장)	• Tel: +84 227 3644 100 • Email: phamtunglam@thaibinh.gov.vn • Website: bqlkc.thaibinh.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5.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5.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076	71,854.60	151	447.91	1,830.33
일 본	4,701	63,241.23	71	1,830.01	2,590.08
싱가포르	2,706	61,842.90	77	4,443.80	5,262.89
대 만	2,818	34,719.01	28	90.37	834.89
홍 콩	1,977	26,738.00	40	798.48	917.51
버진아일랜드(영)	865	22,084.09	10	78.88	151.42
중 국	3,211	19,691.24	78	599.64	1,152.79
말레이시아	652	12,980.54	4	8.6	22.58
태 국	615	12,727.17	10	55.64	176.25
네덜란드	377	10,328.73	10	86.52	141.74
미 국	1,095	9,543.84	19	148.82	182.13
전체 합계	28,093	345,751.35	498	8,588.67	13,262.6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1. 5.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5.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323	232,778.51	215	2,571.41	6,139.42
2	부동산경영	955	61,018.88	15	4,990.52	5,426.5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66	33,733.78	19	740.17	1,049.45
4	호텔, 외식서비스	895	12,521.62	177	319.35	521.9
5	건설	1,759	10,685.21	79	47.5	320.94
6	도소매, 유지보수	5,342	8,835.50	17	125.59	160.59
7	물류운수	887	5,500.45	2	8.68	81.9
8	채광	107	4,894.76	47	6.89	63.31
9	교육, 양성	596	4,423.02	-	-	54.53
10	정보통신	2,369	4,026.77	7	0.72	50.46
11	농, 임, 수산	3,610	3,845.10	11	5.67	46.43
12	예술 오락	505	3,687.22	13	8.11	44.34
13	기술과학전문	138	3,393.57	1	1.01	20.1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03	10	2.03	10.8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1.73
16	행정, 지원 서비스	500	978.5	-	-	1.21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	-	1.19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0.21
19	기타산업	7	11.07			
합계		33,615	396,862.66	613	8,827.66	13,995.0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5 (누계)
수 출	2,447.20	2,634.50	2,814.70	1,169.7
수 입	2,375.10	2,535.00	2,624.00	1,162.4
무역수지	72.1	99.5	191	7.3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5 (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21,887
전기전자제품/부품	30,447	32,571	29,478	19,5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29,446	35,591	44,668	14,873
섬유/직물제품	16,528	18,304	27,042	12,211
신발류	16,297	18,299	16,551	8,461
원목 및 목제품	8,831	8,572	8,384	6,598
수송수단 및 부품	8,855	10,526	12,323	4,437
철강제품	7,985	8,500	9,058	3,557
수산물	4,558	4,160	3,035	3,236
원사(Yarn)	3,822	3,764	3,259	2,165
기 타	67,951	71,337	76,793	34,338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131,310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21년 5월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5 (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27,42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8,65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7,456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5,991
플라스틱 원료	9,896	9,485	4,526	4,968
철강제품	9,097	9,012	8,323	4,647
자동차 및 부품	7,614	1,047	1,056	3,636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3,555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3,362
화학품	5,741	5,886	5,316	3,213
기 타	86,801	98.96	100,175	48,402
합 계	236,687	253,070	262,407	102,607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21년 5월 순위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누계)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37,438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20,283
3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8,749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8,270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4,616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3,267
7	인 도	6,364	6,869	6,555	6,644	2,977
8	독 일	3,756	6,542	6,674	5,235	2,543
9	영 국	4,786	5,494	5,272	4,917	2,507
10	태 국	5,424	5,776	5,758	4,955	2,360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30,321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104,94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21년 5월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누계)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43,790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20,966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8,839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8,458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6,438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5,430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3,503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2,933
9	오스트레일리아	3,182	3,984	4,456	4,677	2,916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2,767
	기 타	40,514	47,063	47,976	48,826	22,829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128,86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21년 5월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5 (누계)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10(0.7)	21,265(20.5)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9,818(16.2)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32	11,447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누계)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4,949(11.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3,740(36.7)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1,324(10.5)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917(50.8)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881(8.3)
계측제어분석기	1,058(145.1)	696(-34.2)	783(12.4)	669(-14.5)	499(57.1)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491(16.3)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478(12.4)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446(2.9)
자동차부품	385(-12.7)	474(23.3)	668(40.9)	673(0.8)	389(91.2)
기타	6,925	6,743	6,685	5,774	2,623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11(0.7)	21,265(20.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21년 5월 순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5 (누계)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2,208(-3.4)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1,300(11.5)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953(1237.7)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512(11.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315(-28.4)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309(9.6)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303(43.0)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280(23.8)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228(29.6)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226(25.0)
기타	5,279	6,197	6,330	6,473	1,240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9,819(16.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21년 5월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0년(연간)	%	△5.4	△9.5	△5.6	△2.1	2.9
		2021년 1Q	%	1.3	N/A	△0.5	△0.7	4.48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N/A	N/A	109.8	147.1%	3.4%
		2021년 4월	-	120.	△46.5%	114.8	N/A	24.1%
		2021년 5월	-	N/A	△74.2%	N/A	N/A	11.6%
	구매관리지수 (PMI)	2020년(연간)	-	N/A	N/A	102.4	44.7	N/A
		2021년 4월	-	50.9	49.0	110.5	54.6	54.7
		2021년 5월	-	50.7	49.9	N/A	55.3	53.1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0년(연간)	-	N/A	N/A	79.5	93.6	N/A
		2021년 4월	-	101.1	N/A	N/A	101.5	N/A
		2021년 5월	-	N/A	N/A	N/A	104.4	N/A
	소매판매	2020년(연간)	-	N/A	N/A	131.0	197.5%	2.6%
		2021년 4월	-	85.2	N/A	135.1	220.4%	30.9%
		2021년 5월	-	N/A	N/A	N/A	223.9%	△1.0%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0.5~0	N/A	△1.2	1.7	3.2
		2021년 4월	%	2.1	4.5	4.7	1.4	2.7
		2021년 5월	%	N/A	4.5	N/A	1.7	2.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0년(연간)	%	△14.3	N/A	1.4	△5.0	△25
		2021년 4월	%	N/A	N/A	N/A	N/A	△0.7(누계)
		2021년 5월	%	N/A	N/A	N/A	N/A	△0.8(누계)
고용	실업률	2020년(연간)	%	3.7	10.4	4.5	7.1	2.5
		2021년 1Q	%	2.9	8.7	4.7	6.3	2.4
		2021년 2Q	%	N/A	N/A	4.6	N/A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연간)	%	△3.2	△10.1	△1.4	△2.2	6.5
		2021년 4월	%	26.6	72.1	63.0	51.9	44.9
		2021년 5월	%	29.8	N/A	N/A	58.8	35.6
	수입증가율	2020년(연간)	%	△7.4	△23.3	△6.3	△16.9	3.6
		2021년 4월	%	25.9	140.9	24.4	29.3	43.5
		2021년 5월	%	32.2	N/A	N/A	68.7	56.4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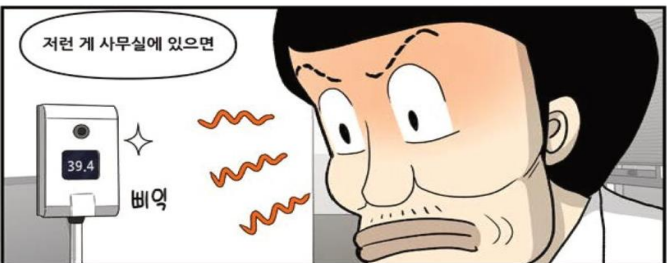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특별판 1부 :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특별판 1부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변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



2. 투자제한 강화 및 국유화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봉착한 자국기업들이 중국 등 타 국가에 저가로 매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국유화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3. 리쇼어링 확대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해온 기존의 생산모델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건제품과 핵심산업의 국내생산을 늘리고 주요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는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U는 의약품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제약업 리쇼어링 정책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대중의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에서 의료장비와 약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 디지털 경제 부각

코로나19가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언택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익명 처리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데이터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판 1부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

현재 전세계 각국은 미 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속에서 2020년 2월 발발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를 맞아 인력 물자의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무역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엄중한 상황 속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정부의 경제개입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늘려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은 당장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거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가까운 미래에 이들 보조금이 WTO 보조금 규정과 연계하여 문제시 될 확률은 낮으나 지급과정의 투명성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한 덤핑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 각 정부들이 자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국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 확산

COVID-19 pandemic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경쟁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 각종 수입규제조치 강화
-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 무차별적 자국기업 지원
- 기간산업 국유화
- 리쇼어링 인센티브 및 자국산 우선구매 확대

美中 갈등 심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 1단계 무역협정 불이행 관련 보복조치 가능성
- 미국의 안보와 연계한 수출입 통제 확대
- 국제공조의 어려움 지속

디지털 경제 부각

디지털 무역 규범화 활성화

-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논의 활성화
- 디지털 분야 국내규제 완화 노력



화면 클릭 시 참가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웨비나

☑ 행사개요

- 일시 : 2021년 8월 4일(수), 오전 8:00~10:00(베트남 시간)
- 장소 : Zoom 온라인 송출
- 주최 : KOTRA, VIETRADE
- 주요연사 : 베트남 정부, WHO 베트남 사무소, 베트남 지방 성정부 관계자 등
- 참가대상 : 베트남 진출(기진출) 희망 국내기업
-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전략, 코로나의 영향과 파급효과,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사례 등



☑ 프로그램

시간 (베트남 시간)	내용	연사
8:00 ~ 8:10	행사 소개	
8:10 ~ 8:20	개회사	VIETRADE 청장
8:20 ~ 8:30	환영사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8:30 ~ 8:50	코로나가 베트남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WHO 베트남 사무소장
8:50 ~ 9:10	베트남 코로나 상황, 정부의 예방과 통제 전략	베트남 보건부
9:10 ~ 9:25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 사례	베트남 지방 성정부 1
9:25 ~ 9:40	효과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	베트남 지방 성정부 2
9:40 ~ 10:00	Q&A 및 Closing	사전 및 Live 접수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gpb8C44Lo86LVace6>

※ 문의처:

☐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하노이)

- 최동철 팀장 / dcchoi@kotra.or.kr / +8493 4557363
- Ms Tran Thu Quynh / thuquynh1124@kotra.or.kr / +8494 7595626
- Ms Nguyen Thi Nguyet Ha / hanguyen@kotra.or.kr / +8498 1103280

☐ KOTRA 본사 신남방 중동팀(서울)

- 한송옥 대리 / songok.han@kotra.or.kr / 02 3460 7666





화면 클릭 시 참가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친환경 기술규제 기업설명회 행사

□ 목적

- 베트남 국책 베트남인증센터(QUACERT) 및 베트남표준품질원(VSQI)의 규제 담당자를 초빙하여 기업-규제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 공유로 현지 국내외기업에 대응 전략 제공

* 베트남인증센터 :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 베트남표준품질원 : Vietnam Standards and Quality Institute, VSQI

□ 참여대상 : 베트남 소재 국내기업 및 현지기업

□ 설명회 개요

-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KTR, KTL
- (일시) '21년 7월 13일(화) 13:30 ~ 16:00 (베트남시간)
- (주제) 친환경 플라스틱 규제, 물효율 라벨 적용 제품 규제, 전기전자 분야 인증시스템 최신 동향
- (참여링크) <http://naver.me/GxOY05mD>
- (참여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줌) 이용 (베-한 순차통역)

※ 회의 참여 정보(화상) / 2021년 7월 13일(화) 13:20분부터 입장 가능

■ Zoom 회의 참가 링크

<https://zoom.us/j/95715473347?pwd=bHJlOGwzUTVlVDYrL1lDQ3RKSXlrdz09>

■ 회의 ID: 957 1547 3347

■ 암호: 20210713

○ (일정) 설명회 세부 순서(안)

#	시 간	시간	내 용	발표자
1	13:30~13:40	'10	· 인사말	KATS (기현종 연구관)
2	13:40~13:50	'10	· FTA TBT 종합지원사업 소개 및 활용 방법 · 질의응답	KTR (정경호 수석)
3	13:50~14:30	'40	· 전기전자 제품분야 베트남 인증시스템 최신동향 및 정책 방향 · 질의응답	QUACERT (Mr. Quoc Anh)
4	14:30~15:10	'40	·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 표준 개발 최신 동향 · 질의응답	VSQI (Dr. Hoang)
5	15:10~15:50	'40	· 베트남 물질약 라벨 및 물효율 적용 제품 기준 소개 · 질의응답	VSQI (Mr. Ngo)
6	15:50~16:00	'10	· 맺음말 및 기타 마무리	KATS (기현종 연구관)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